

어이없는 교육청... 또 임용 합격자 반복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 A→B→C로 바뀌어 자체감사 통해 실기평가 1개 항목 누락 확인 교원 선발 신뢰 추락... 도감사위 감사 예정

속보=제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또 다시 바뀌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한차례 합격자 변경 공고를 냈던 제주도교육청이 '업무 실수'로 다시 합격자를 반복하면서 교원 선발 시험의 신뢰도가 곤두박질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과문을 냈지만 임용시험 전반의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 발표 과정에서 체육 교사

합격자를 변경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합격자가 다시 바뀌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체육 교사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지 7시간 만에 이를 반복했던 도교육청은 이날 합격자를 또 변경해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는 응시자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뀌게 됐다.

합격자가 두 차례나 바뀌게 된 데는 인사 담당의 업무 실수와 교차 검증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지난 10일 전산시스템에 시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을 본 응시자 12

명의 '실기평가' 점수를 누락해 합격자가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에서 또 다른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맨 처음 실기평가 점수를 빠뜨렸다는 사실도 응시자의 민원을 통해 확인했다.

변속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담당 부서에서 밝힌 문제에 더해 체육 교과의 실기평가 5개 항목 중 선택 항목 1개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체육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실기평가는 육상, 체조, 수영 3개 필수 항목과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항목 중 2개를 선택해 치러졌는데, 2차 시험 응시자 12명의 선택 항목 1개 성적이 업무 실수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교사 임용시험 전반

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자 C씨는 실기평가 점수가 낮은데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10일 교육청을 향의 방문해 재검기록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는 본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화가 난다"며 "(실기평가 점수를) 재차 확인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다. (임용시험 과정의 문제를) 쉬쉬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자은기자



경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 어제 수사상황실 설치... 여론조사·금품살포 무관용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선거사범을 24시간 집중 단속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지방청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

제주지방청 수사과와 서부서, 서귀포서 등 3개 경찰서에도 설치됐으며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간 운영된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총선의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수사를 계획이다.

이날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학연·지연·편파 수사 등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범죄 수익금 5억여원 추징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민기자



민간위탁 사업 재공영화 촉구 386명 선언문 발표. 민주당측 제주본부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에 대한선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제주도민 386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희민기자

제자 대회 상금 가로챈 대학교수 징역형 집유

제자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K교수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K교수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대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아 이중 60만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K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학교에 허위로 청구해 타낸 연구자료비 2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이상민기자

불법 녹취한 대화 보도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6·14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내용을 보도한 제주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도내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라 전 실장과 한 사업가와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지난 2018년 5월 16일부터 그해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녹취 파일을 A씨에게 넘겨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B(51)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

됐다.

당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첫 김영란법 적발 전 공무원 신고유예

제주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처음 적발된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제주도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4월 6일 부하 직원 공무원 3명과 함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A업체 대표 이모(62)씨가 주선하는 자

리에 참석해 음식과 술 등 1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 등으로부터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금 등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업무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한 점,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환경단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곳자왈사람들은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북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며 "또한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공모 참여 건설사들로부터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시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현석기자

감골모독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濟)州(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국제보청기(국제기계점)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경자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 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착용 그랜드 첫 방문 고객
배터리 무료 증정(25,000원 상당)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팍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